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Daishin's View

여전히 불안한데, KOSPI 반등이 지속되는 이유

- KOSPI 단기 숨고르기 등락 중. 2차 반등을 위한 에너지 응축과정
- 급락과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유입된 불확실성 변수들 완화. 상호보완적 영향
- 채권금리 단기 등락은 고점통과 과정. 단기 변동성은 트레이딩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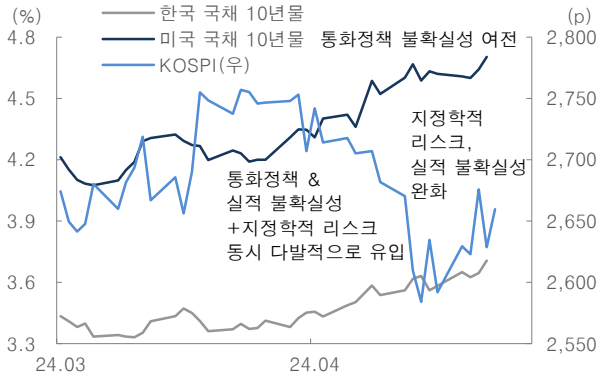
KOSPI가 저점대비 120p 급반등 이후 단기 숨고르기 국면은 불가피하다. 단기 과열 양상 속에 중요 저항대(KOSPI 2,680 ~ 2,690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KOSPI의 단기 등락은 KOSPI 2,650선 안착, 2,700선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과정이라고 본다. 5월 중 전고점 수준(2,750선 전후)까지 2차 반등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 자세한 내용은 "[권틴전시 플랜][다음주 시장은?] 2,650선 안착을 위한 진통과정" 참조

최근 채권금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KOSPI는 2,600선 이상에서 등락 중이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 변수들을 KOSPI가 선반영했고, 4월 급락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었던 불확실성 변수들이 하나둘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A 변수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B 변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다음에는 C 변수가 안정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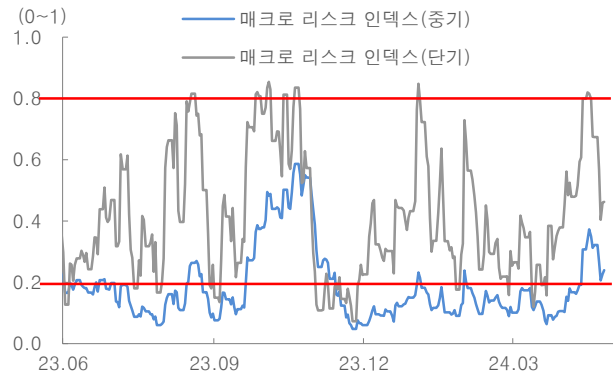
급락과정에서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실적 불안심리가 동시 다발적으로 커졌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최근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되었다. 게다가 실적 불안심리로 인해 낮아진 주가는 오히려 실적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실적 결과에 따라 주가 급등락이 엇갈리고 있지만, 실적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업종/종목은 실적 쇼크에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주 미 재무부 자금조달 계획(4/29), 5월 FOMC회의(5/2), 미국 4월 고용지표(5/3) 결과에 따라 채권금리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선물 매매로 이어져 KOSPI 널뛰기 장세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KOSPI가 다시 2,6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12월 FOMC 내재금리가 5%에 육박할 정도로 충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반영하고 있어 채권금리 등락은 정점통과 과정이라고 본다. 외국인 선물 매매도 매도 Climax를 통과 중(4/3 이후 6조원 이상 순매도)이라고 생각한다. 통화정책 불안심리까지 진정될 경우 KOSPI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단기 숨고르기는 또 한 번의 트레이딩 기회이다.

채권금리 상승에도 KOSPI 반등 지속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하락. 단기 Risk On 시그널



자료: FnGuide, CI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